선생님과 교수님

南 相 華
(湖西大 行政學科)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이 들어 있는 5월을 보내면서 어린이의 아버지로서, 어버이의 아들로서 그리고 학생의 스승으로서 나의 마땅한 役割과 나에 대한 그들의 期待와 이들과의 참다운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본다. 훌륭한 아버지, 효성스런 아들, 존경받는 스승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수정하고 또한 지우다가 이런저런 생각 끝에 부끄러움과 어색함을 느끼면서도 스승으로서 생각했던 바를 紙面에 남기기로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특히 5월 들어 학생들이 강의실을 뒤로 하고 거리로 뛰어나와 최루 가스를 마시며 죽어간 동료들을 애통해 하면서 그들의 뜻을 외쳤으나, 한편 메아리마저 들을 수 없는 허망함에 힘이 빠져 돌아오곤 하는 모습을 계면적게 바라보아야 했기 때문이며, 그러한 가운데도 스승의 날이라며 부끄러운 가슴에 꽃을 달아 주면서 "그간 감사했습니다"라는 체면치레 인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10년에 접어들면서 나 자신이 학생을 가르칠 만한 스승이라는 생각보다 이들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때로 학생들이 敬意을 표해 오거나 언젠가 내가 남긴 말들이 메아리 되어 돼돌아 올 때면 더없는 기쁨을 느꼈다. 더욱이 요즈음은 틈틈이 "교수라고 부르지 말고 선생님으로 불러다오", "나는 교수라 불리우는 것보다 선생님으로 불리우는 것이 훨씬 기쁘고 보람있게 느껴진다" 하는 등의 주제넘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스승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期待가 어떤 것이며, 이 또한 정당한 기대인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참스승에 대한 모델을 세워야 한다는 내면적 요청에 못이겨 몇 가지 생각해 보기로 한 것이다. 이는 학교 교실에서 또는 과외 활동중에 학생들과 만나는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의문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때로는 끝없는 論爭으로 이어지기 쉬운 것들이다.

그것은 첫째, 교수와 학생 간의 關係가 부분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全人格的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교수는 강의실에서 강의만 하면 학생과의 관계에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냐 하는 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일반 社會關係, 이를테면 보통 직장이나 이웃, 기타 취미 활동이나 사회 봉사를 위한 단체에서의 다른 사람과의 關係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쟁점거리이다. 여기에는 그 關係를 극히 한정된 국면인 참여자의 '본분'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구성원 간에 전체적·전인격적 關係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 관행을 보면 개인주의적 인생관과 기계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 英·美人들이 부분적 관여의 표본으로 보이며, 집단주의적이고 유기체적 사고를 지닌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일본 등은 전인격적 관여에 지극히 익숙해진 듯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모든 社會關係에서 그렇듯, 미국적 문화와 사고 방식이 그들의 기계 문명에 편승·도입됨으로써 이 부문에서도 이중적 期待를 갖게 하고 있다. 학생들보다는 교수들 사이에서 더 자주 論爭이 일고 있는 듯한데, 특히 젊은 이공대학 교수들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수가 교수는 강의실에서 전문 지식만 전달하면 된다는 매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같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이 교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들이 이율배반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늘 갈등을 겪고 살든지, 그러기 싫으면 일관되게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갈등의 책임이 영·미식 생활 양식의 잠입에 있다면, 즉 그들의 우월한 기계 문명으로부터 문화적 우월성을 도출하고 이를 닮아가는 것이 西歐化, 곧 발전이라고 생각해 왔다면 마땅히 이는 극복되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文化란 역사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현존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특성과 존재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의존적 關係로 맺어지는 현대 조직 사회에서 오히려 집단적 생활 방식과 전인격적 相互作用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적이고 부분적인 인간관계에 길들여진 미국인들은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하바드대학의 William Ouchi가 그의 저서 「Z이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구인들이 종래 동양 사회의 후진성의 주범으로서 '가부장적 폐습'이라고 매도하던 전인격적 相互作用 방식을 오늘날에 와서는 정반대로 세계 무대를 제패한 일본식 기업 경영의 결정적인 토양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70년대 이후 미국인들이 도모하고 있는 조직 발전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생활화된 서로를 이해하고 협동하며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것들이다. 조직에서 전인격적 人間關係가 결코 비합리성과 비능률의 원인이기보다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는 바, 교수가 영향력 행사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건전한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심어 주고 싶다면 양자 關係에서 전인격적인 커미트먼트를 선택함에 주저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학생들로부터 '교수님'보다는 '선생님'으로 불리우기를 바라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주화의 전진 기지로 자처하는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은 대등한 交換關係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전자가 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후자는 이를 수용하는 비대칭적 關係이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자체가 무의미하고, 교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친 自己卑下인 듯하다. 그러나 대학의 현실을 잘 알거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물음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은 학사 운영, 징계 등의 학생 지도, 심지어 강의와 관련되는 일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의사를 반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항하여 교수들은 '교권'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이를 막고 있는 것이 오늘날 거의 모든 대학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 서로 간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불안정했던 정치·사회적 과거가 져야 할 부분적 책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양자 스스로가 져야 할 것이다. 교수가 사회로

부터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요청받았을 때 이를 회피·왜곡하거나 강요된 뒤틀림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지는 않았는지? 학생들은 이러한 과거사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쨌든 양자의 관계는 불신을 털어 버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적 관계로 빨리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 바람직한 關係란 앞서 논의한 전인격적 관계를 전제로 놓고 보면 교수가 학생에게 마땅히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의견·행위·태도 등에 변화를 가져 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학생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관계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양자의 關係란 상인들 간의 그것처럼 이익을 배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교수를 신뢰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전한 가치관이나 의견·행위·태도 등을 닮아가는 과정, 즉 모델링이기 때문이다.

셋째,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현실적 期待와 규범적 期待 간에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많은 학교나 학생자치 단체에서, 혹은 교수가 연구자료로 쓰기 위하여 '인기있는 교수'에 대한 조사를 심심찮게 해 왔으며, 지금 진행중인 것도 있을 것이다. 얻어진 자료를 보면, 따뜻하게 대하고 칭찬을 잘 하며 술자리에 잘 어울리고 술값도 잘 내는 교수가 가장 인기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결과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사회심리학자인 French와 Raven의 이론에 따르면, 교수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의 태도나 행위, 신호 등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반 또는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돈이나 힘, 훌륭한 자격이나 인격 또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이들 간의 적절한 조합을 지니고 있어야 학생들이 말을 듣고 따라 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물질적 보상은 이로써 교환이 가능한 영역과 정도에 그 영향이 한정된다고 한다. 학생들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변화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바, 혹시 이러한 수단에 의지해서 인기를 누리려는 교수가 있다면, 그는 이미 교육을 포기한거나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사회조사에 다소 경험을 가진 필자가 생각하건대 학생들에게 "만일 당신이 교수가 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교수가 되고 싶은가?"하고 물으면 그 결과는 결코 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대학을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두 종류의 조직을 조사한 필자의 자료에 기초하여 추측컨대 자격과 인격을 갖추고 이에 더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교수가 되고 싶다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을 것이다. 어떤 것을 좋다고 평가하는 것과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것은 아니지만, 군인이 멋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 자식을 군인으로 만들겠다는 부모는 적다고 한 조사 보고는 널리 알려져 있는 한 가지 예이다. 학생들의 현실적 期待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교육자의 본분이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함에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 실로 교육이란 바람직한 상을 닮아가는 모델링이며, 그 모델은 실제로 제시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이나 이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매우 규범적이다. ☛